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학부 안내 02-944-5000
www.iscu.ac.kr
대학원 안내 02-944-5500
grad.iscu.ac.kr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

정가: 5,000원

2016 DT BRAND POWER B

DT브랜드파워대상



2016 WINTER VOL. 31

SCU e이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 2016 WINTER VOL.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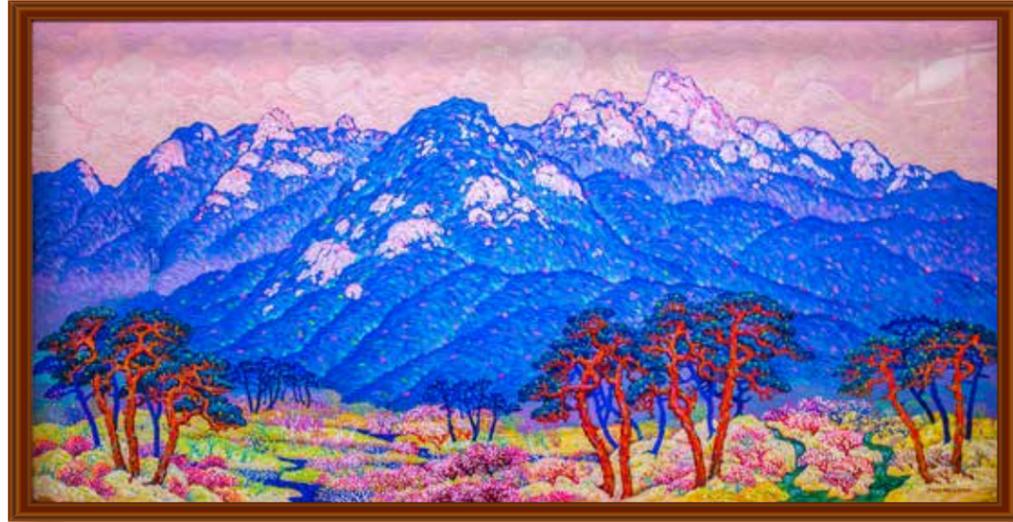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제8회 한미친선송년음악회 기념촬영



이씨산수도
2013
이동협 Lee Dong Hyup

산에 곁을 주다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을 담은 산을 볼 때면 딱 톱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동협 작가의 풍경화는 과거에 그랬던, 그리고 미래에 바라는 마음으로 푸르른 산을 표현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상업이 번창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자연이고 그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특히 그는 주로 서울 주변 산을 작품 주제로 선정하는 만큼 늘 곁에 있었지만 잊고 지낸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 ① 땅의 혼이라는 오고무공연을 펼치고 있는 디딤무용단
- ② 군교육지원센터 개소식 후 단체 기념촬영
- ③ 허묘연 총장, 배상민 교수(중임)와 참여 학생 기념촬영
- ④ 제막식 행사를 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와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

CONTENTS www.iscu.ac.kr

특별한 e-이야기

- 04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 연해주 방문
- 06 한미친선송년음악회
- 08 한·아세안 대학 총·학장 협의회
- 10 교수-학습 우수사례 시상 및 특허권리 획득
- 12 대학 강점 및 세무회계학과 신설 안내

더불어 e-이야기

- 14 초청 만찬 소식
- 16 학과 경쟁력 사업 & 학술대회
- 20 군교육지원센터 개소식
- 22 한-아세안 이러닝 포럼
- 24 국제 세미나 개최
- 25 교수 에세이

당신의 e-이야기

- 26 해외명사 인터뷰
- 28 연세대학교 의료원 시계탑 제막식
- 29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 특강
- 30 문훈숙 단장 특강
- 31 김민우 특강
- 32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조신영 동문
- 33 상담심리학과 나승수 학우
- 34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동문 인터뷰

우리의 e-이야기

- 36 수상 소식
- 38 이성태, 남경호 교수 표창
- 39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직업 체험
- 40 협약소식
- 4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 43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 44 단신 뉴스
- 48 교수동정
- 51 겨울 동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6년 WINTER VOL.31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박병석, 정성원, 한수미,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55
 感커뮤니케이션 (02)733-2878

서울사이버대학교 명예이사장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 연해주 방문

- 이세웅 부의장을 비롯한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연해주 방문
- 남·북·러 협력에 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



연해주를 방문한 이세웅 명예이사장과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의 관계자들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북5도지역회의는 이세웅 부의장을 주축으로 11월 1일(일)에서 4일(수)까지 연해주를 방문하였다.

민주평통은 통일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1980년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실현에 있어 정부와 시민의 중재와 단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세계 각국에 1만 7,800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직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처,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의장을 맡고 있다.

연해주를 한반도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으로, 다수의 고려인과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의 이번 연해주 방문은 남북러 협력에 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는 첫째 날 블라디보스톡 지역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북러경제협력 현황을 논의하였고, 고려인들의 역사 의식, 민족 의식 등에 관해 토론하였다.



우수리스크 이상설 의사 유허비에서 참배하는 방문단

연해주는 한반도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으로, 이번 이북5도지역회의 연해주 방문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발걸음을 남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우수리스크 수이푼 강가에 위치한 이상설 선생 유허비에서 함께 참배하는 등 독립운동 현장을 답사하며 통일을 염원했다.

방문 둘째 날인 3일에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된 남북관계 현황 세미나에서는 중앙일보의 통일 및 북한전문 이영중 기자가 '실향민 2,3세와 남북 통일'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자문위원들 간의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해주와 북한의 실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천연 자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남북러 삼각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세웅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은 우수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강사양성학부와 극동연방대 한국학대학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극동연방대의 쿠릴로프 부총장은 한국학대학 건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이세웅 부의장의 재정적 후원과 한러문화교류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극동대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 중인 민주평통 이북5도지역회의



극동연방대 한국학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이세웅 부의장



도밍고 로빈슨 중령의 지휘 아래 캐럴을 연주하는 미8군 군악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원한 제8회 한미친선송년음악회

- 서울사이버대학교, 올해로 8회째 한미친선송년음악회 지원
- 세계 공통의 언어인 음악을 통해 양국 간의 친교를 높임
- 본교 재학생들도 함께 초대하여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2월 6일(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미친선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한·미 양국 간 친선을 도모하고, 국내 주둔하는 미국 장병을 위문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음악회에는 이세웅 예술의 전당 명예이사장, 허묘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본교 관계자와 주한 미8군 버나드 S. 샴포우 사령관 부부를 비롯해 미 장병과 가족들, 그리고 본교 재학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공연을 즐기고 송년 분위기를 한껏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공연을 맞아 허묘연 총장은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인 미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한·미 간 우호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으며, 미8군 버나드 S. 샴포우 사령관 또한 축사를 통해 “음악은 세계 공통의 언어로서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친선송년음악회는 주한 미군들을 위해 본교가 지원하여 매년 거행하고 있는 음악회로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도밍고 로빈슨 중령의 지휘 아래 미8군 군악대의 화려한 무대가 선보였고, 2부에서는 국수호 디딤무용단의 한국의 전통적인 흥을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36사단 장교들과 허묘연 총장(중앙), 이정원 교수(좌측 세 번째)



땅의 혼이라는 오고무공연을 펼치고 있는 디딤무용단



디딤무용단의 피날레 공연을 장식한 북의대합주 중 화합



공연을 마치고 버나드 S. 샴포우 사령관과 미8군 군악대 단체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주관 한-아세안 총·학장 협의회

- 아세안 10개국 총·학장 및 교육부 인사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료
- ‘한-아세안 고등교육 혁신 체제’ 구축에 있어 본교의 주도적 역할 기대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사이버대학 아세안사이버대학프로젝트 사무국이 주관한 ‘한-아세안 총·학장 협의회’가 지난 12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양 일 간 본교 B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닝을 통한 ‘한-아세안 고등교육 혁신 체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대학 간 협력·교류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와 그 외 국가 간의 이러닝 격차 축소 등 사업 성과를 홍보해 신규 협력대학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10개 국에서 70여 명의 이러닝 전문가가 참여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회원국가의 주요 대학 총·학장과 교무처장 및 교육부 인사가 참석하고, 한국은 교육부 관계자와 사이버대학 총·학장,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묘연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사업의 협력 유도과 확대운영위원회 출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각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신규 협력대학의 참여를 독려했다”면서,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한-아세안 고등교육 혁신 체제’ 구축과 누구든지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닝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세안 10개국 교육인사가 참석한 한-아세안 총·학장 협의회



한-아세안 대학 간 협력·교류 프로그램 소개



협의회를 마친 후 서로의 서명을 남기는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자체 개발한 이러닝 시스템인 ‘SCU WAVE’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2012년부터 교육부의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주협력대학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말을 전하는 허묘연 총장



차이콥스키홀에서 진행 된 단체 기념촬영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서울사이버대 SCU Learning WAVE

- '사이버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다 수상**
- 총 3건의 **특허 권리를 획득**하여 차세대 이러닝 서비스를 위한 기반 완성



(좌측부터) 김시원 부처장, 정영애 교무부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2015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다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한 '사이버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 12월 10일(목) 영진사이버대학 서울학습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대학은 차세대 교수학습 시스템 'SCU Learning WAVE(이하 WAVE)'로 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 선정되었으며 '교수피드백 영상기반 온라인 토론수업'으로 특별상(원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정영애 교무부총장은 "WAVE는 세미나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웹애플리케이션이나 웹서비스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으로 손색없다"고 설명했다. 금번 수상은 우리 대학의 탁월한 교수학습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수업운영의 우수사례를 공식적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이러닝 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인정받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이러닝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멀티채널용 학습자원 적응화 방법론
- 멀티채널 스마트 러닝 시스템
- 이중화 종합정보시스템

총 3건의 차세대 이러닝 서비스 특허 권리 획득

최근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채널이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공급측면에서도 이러닝 서비스의 다양성과 안정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대학은 '스마트 러닝을 위한 멀티채널용 학습자원 적응화 방법론'과 '스마트 러닝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사이버교육을 실현하는 이중화 종합정보시스템' 등, 총 3건의 특허 권리를 획득하여 차세대 이러닝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완성했다. 오랜 연구 결과로 총 3건의 특허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PC나 스마트 기기 등 다채널 기기에 적합한 학습자원을 배포할 수 있고 이러닝 콘텐츠를 학습자 기기의 운영체제 및 사양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이러닝 서비스에서의 다양성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다. 보다 안정적인 이러닝 서비스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우리 대학은 차세대 사이버 교육의 기틀을 완성하고 향후 사이버 교육의 기준을 만드는 선도 대학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SCU 특허 출원인 박철 부처장, 김시원 부처장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교육 일류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완형 입학처장

요즘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학위취득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역량을 학문의 과정을 통해 발견함으로써, 단순한 기능향상이 아니라 삶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 여기에 우리 대학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를 수업의 현장에서 구현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 정통 클래식 피아노교육의 음악학과를 개설한 것은 단

지 음악학과의 차원을 넘어 우리대학이 남다른 교육가치관을 실현하려 과감히 투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인프라!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연구역량! 오직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SCU를 선택하는 이유

-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2007, 2013)
- 교육부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프로젝트 단독주관대학(2015)
- 교육부 교수·학습 우수사례 최다수상(2015)
- 최대 규모의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와 전국 8개 지역 캠퍼스
- 사이버대학 최초 학생맞춤형 1년 4학기제
- 사이버대 최초 이리닝 국제대회 수상 및 웹 표준 HTML5 강의 콘텐츠 개발
- 사이버대학 최대(560㎡) 방송국 수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 일반대학 대비 1/3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제도
- 선후배간 유대감 증진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SCU 멘토링 시스템
- 초청 특강 및 세미나 개최와 재학생 초청 문화예술 공연 지원
-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최고 수준의 사이버대학원(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전공) 설립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 현장

100% 세무사와 회계사 교수진으로 구성된 신규 학과 융복합적 인재 육성, 세무회계학과

우리 대학 세무회계학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형 과목을 많이 구성하여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학과의 모든 세무회계과목은 100%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하십니다.

또한 회계,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자산관리, 투자, 생애 설계 등 실물 경제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춘 융·복합적 세무회계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분야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여러분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세무회계학과 특징 및 강점

- 세무, 회계, 종합자산관리, 경영분석 등의 통합적 퓨전학습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 맞춤형 실무위주의 교육과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격증 Intensive Course 대비반 운영
- 현장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의 현장밀착형 실전강의
-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전담교수 밀착 관리
- 입학에서 졸업까지 개인전담 지도 교수제 운영
- 학년별 진로코칭을 통한 재학생 커리어 개발
- On-line 상의 정규교과 외에 활발한 Off-line 특강
- 재취업(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 제공
- 세계대회 은상의 Learning Wave System



세무회계학과 전호진 학과장

세계로 뻗어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히다

- 서울사이버대 주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로젠 소머슨 총장 취임 및 내한기념 만찬
- 한·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한러시아대사관저 초청 만찬 참석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로젠 소머슨 총장 취임 만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적인 디자인 명문대학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이하 RISD)과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로젠 소머슨 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초청만찬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26일(월)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초청 만찬은 특히 RISD의 한국인 재학생 및 졸업생 부모들이 초대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허묘연 총장은 건배사를 통해 “확고한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로젠 소머슨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세계의 인재를 키우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젠 소머슨 총장 또한 축사를 통해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세웅 명예이사장님 이하 많은 서울사이버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갖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이너 혹은 아티스트가 될 것이며, RISD는 든든한 협력자가 될 것이다”고 말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한국인 재학생 학부모와 함께한 로젠 소머슨 총장 취임 만찬



로젠 소머슨 총장 축사 후 기립박수로 화답하는 참석자들



선물 받은 명패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소머슨 총장



(좌측부터) 이세웅 한러문화예술협회 명예이사장,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대사 부부

주한러시아대사관 초청 디너 만찬 참석

이어 10월 29일(목)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디너 만찬을 개최하였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가 직접 주최한 이번 만찬에는 이세웅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사장, 이상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박현석 부총장 등 한국과 러시아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티모닌 대사는 축사를 통해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힘써주시는 한러문화예술협회 및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예술 가교역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만찬 전 인사말을 하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러시아대사



건배 제의 후 단체 기념 촬영

인재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SCU 경쟁력 사업

‘실무’ 경험을 쌓아 ‘현장’ 경쟁력을 높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 현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학과 경쟁력 사업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학생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진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자.



심선경 교수(우측)의 사회로 진행된 복지경영 아카데미



영유아를 위한 교구제작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경쟁력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이희연 교수(우측)



노인선호노래에 맞추어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 복지시설경영전공

복지와 경제를 이끌어 갈 리더 양성

복지시설경영전공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기본이해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법을 교육하고 전문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복지경영아카데미’를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협동조합 운영의 기초와 사례를 직접 배우고 탐구하는 “복지경영아카데미-협동조합의 이해”가 펼쳐졌는데 ‘쿵비즈 협동조합 대표의 이론’, ‘기초 특강과 재학생 동문들의 사례 특강’,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경영전공의 복지경영아카데미는 복지과 경제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리더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 아동복지전공

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의 역량 강화

전공 개설 2년차인 아동복지전공에서는 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경쟁력사업을 진행하였다. 학계전문가 간담회 및 보육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때 파악된 이슈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전공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보육전문가들이 재능나눔으로서 동료학생들에게 ‘영유아를 위한 교구제작’, ‘숲 체험활동’, ‘동화구연’, ‘아동영어지도’, ‘아동레크리에이션 지도’, ‘손 유희’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실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전공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 청소년복지전공

진로개발 및 진로역량 강화

청소년복지전공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종합적·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학생들에게 전문적 상담기술 및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다양한 ‘임상기법 심화 워크숍’, ‘청소년지도사 면접대비 특강’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 높은 강의 콘텐츠와 ‘청소년 복지 학습도우미 미니북’ 제작과 같은 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내재된 학습 욕구를 촉진하고, 대내외적으로 청소년복지전공의 전문적인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경쟁력강화사업의 목적을 두었다.

● 노인복지전공

학생 참여 스터디 그룹 구축

노인복지전공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영역별 현장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생이 참여하는 ‘주제별 학습조직(스터디 그룹)’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기적 학습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도출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노인복지실천현장의 실천전문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2015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각 그룹별로 현장 전문가의 지도를 받았으며, 11월 21일(토)에는 그동안 스터디 그룹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해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세희 교수(중앙)가 진행한 사회복지사 1급 실전 모의고사



가족놀이치료를 강의하는 서울여대 김유숙 교수



빛 미술심리치료연구소 김태은 소장이 미술치료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학생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된 자격증 취득반



가족놀이치료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과 김요완 교수(좌측)

● 심리상담학부

‘2015 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에서는 2014년에 이어 “2015 SCU 심리상담학부-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센터 견학을 통한 상담의 실제 체험’, ‘상담 시연 참관 및 실습’, ‘구체적인 심리치료 기법 시연 및 실습(가족놀이치료, 미술치료, 사이코 드라마)’ 등을 통해 이터닝콘텐츠 수업을 통해 배운 상담이론들이 상담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

생들이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상담학부 재학생들이 상담 및 심리학 전공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규모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부산 지역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상담 시연 및 특강 강사로 초청하고, 지역의 상담센터를 견학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전문가를 연계하여 상담 실습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경상학부

지식 나눔과 하나된 마음을 확인한 공동학술대회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는 지난 11월 7일(토)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을 발표하는 공동학술대회와 모두가 하나 되는 MT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학부 학생들이 그동안 경험한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나눔으로써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함께 참석한 허묘연 총장은 인사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지식공유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그 시작점이자 진원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격려했다.

● 국제무역물류학과

무역 및 물류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

국제무역물류학과는 2015년도 학과경쟁력사업으로 무역 및 물류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및 원산지관리사 합격을 위한 자격증 Intensive Course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온라인 수강과 동시에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인강은 전문강사에 의해 녹화되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온라인 강좌가 국제무역물류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학과 신청 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특강은 자격시험 출제경력이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약 2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릴레이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줄 좌측부터) 전호진 교수, 김영민 교수, 서영수 교수, 임태순 교수, 허묘연 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전광호 학생처장, 고윤승 교수 등이 참석한 경상학부 공동학술대회

서울사이버대학교 국내 최초 군교육지원센터 설립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 많은 내빈들이 축하인사를 전해
앞으로 군인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 예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월 11일(월) 국내 대학 최초로 군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원)를 설립해 12월 15일(화)에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육군참모차장과 국방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방효복 장군, 국방대학교 총장과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신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본교 군경상담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심용식 장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관리복지차장 강창구 육군 준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개소식 전날, 본교에서 직접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며 “이번에 개소된 군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군 교육의 혁신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허묘연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와 통일에 기여하는 군 친화대학으로서 대학 사회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교육지원센터는 군인 재학생에 대한 학사서비스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군 교육지원을 통해 국가 안

보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서울사이버대 전체 재학생 중 10%인 1,200여 명이 군인 신분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 맞춤형교육과정 개발, 군 요구에 부합하는 학과 개설, 학업 환경을 고려한 윈스탑 서비스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적의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경상담학과에서 진행했던 ▲육군가족 영유아 발달 교육 ▲부대별 상담역량 강화 과정 ▲부적응병사 심리적응교육 ▲병사 리더십·인성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련 협력연구를 통해 ▲전역예정 군인 재취업 교육과정 개발 ▲군 상담 관련 연구 ▲각종 교육 프로그램 효과 분석 등 교육·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 앞서 지난 11월 19일(목)에는 36사단 장교들이 방문하여 이성태 교수 특강 및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고 본교의 우수한 이러닝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Brief Interview



이정원 군교육지원센터장(군경상담학과 교수)

통일과 안보에 기여하는 군 친화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자부심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 관련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리더십학과, 환경관리 등 같이 군이 필요로 하는 신규학과 개설에도 힘을 보태어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대표 군 친화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교 A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군교육지원센터 개소식



(좌측부터) 김동삼 대령, 허묘연 총장, 강창구 장군, 심용식 장군



본교 대형 스튜디오에서 축하 영상메시지를 녹화 중인 한기호 국회의원



군교육지원센터 개소식 후 단체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 ACU 사무국 주관 ‘한-아세안 이러닝 포럼’

- ‘이러닝을 통한 고등교육의 혁신’을 주제로 본교 캠퍼스에서 개최
- 국내·외 이러닝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이러닝 운영 우수사례 공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2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양일 간 ‘한-아세안 이러닝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부 주최, 서울사이버대학교 아세안사이버대학프로젝트 사무국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러닝을 활용한 고등교육 사례 공유와 아세안 이러닝 수업 운영모델 확산 및 한-아세안 간 공동협력 도모를 위한 자리였다.

본교 B동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국을 포함해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가의 대학교수들과 국내·외 이러닝 전문가 80여 명 등 한·아

세안 고등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포럼 주제는 ‘이러닝을 통한 고등교육의 혁신(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through e-Learning)’이었다.

이은주 ACU 사무국 국장은 “이번 한-아세안 이러닝 포럼은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닝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각 국가 이러닝 시스템의 발전을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한·아세안 고등교육 발전과 누구든지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러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이러닝 포럼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이러닝 전문가와 본교 관계자들



포럼을 진행 중인 이은주 ACU 사무국 국장

ASEAN ROK e-Learning Forum



국내외 이러닝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한-아세안 이러닝 포럼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through e-Learning



세미나에 참가한 국경없는 의사회, 유엔난민기구본부 등의 관계자와 본교 허묘연 총장(중앙), 권구순 교수(좌측), 김요완 교수(우측)

한국연구재단 지원-서울사이버대 산학협력단 주관 분쟁지역 난민아동 정신보건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세계 무력 충돌 지역 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적 지원 국제세미나
- 특별히 시리아 난민 지원에 있어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

11월 5일(목)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무력충돌 및 재난위기 아동대상 정신건강 및 심리적 지원 증진 세미나(Seminar on Approaches to Improve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Supports for Children-at-Risk under Armed Conflict or Disasters)」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인 <시리아 난민아동의 정신보건향상 및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요르단 자아파리 난민캠프에서 실시된 태권도 교육을 중심으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였다.

세미나의 목적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피해 받고

있는 난민, 특히 난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론과 프로그램, 관련 척도, 실제 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좀 더 나은 MHPS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그 의미가 컸다. 또한 재난과 전쟁의 피해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하여, 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되어, 난민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된 점이 이번 세미나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더 하트 오브 더 씨(In the Heart of the Sea)’ & ‘사우스포(Southpaw)’ 분노에 맞서는 두 가지 고민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의 <영화이야기>



‘분노의 파괴성’에 대한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개인적 감정적 분노이든, 자연에 대한 무모한 분노이든 분노는 삶을 파괴 시킨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사회는 지금 분노로 가득하다. 극단주의 신앙에서 연유하는 어쩌면 세기말적 분노이든, 계층 간의 갈등과 혼란스런 정국이 가져오는 내재적 분노이든, 이런 회피할 수 없는 분노에 맞서는 방법에 대하여 두 편의 영화는 함께 고민하게 한다.

‘더 하트 오브 더 씨(In the heart of the sea)’란 영화는 1851 H. 멜빌의 소설 ‘모비딕(Moby Dick)’을 원작으로 한다. ‘백경(白鯨)’이란 영화로도 소개되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고래잡이가 거대한 산업이었던 시절, 30미터 80톤의 거대한 고래에 난파당한 고래사냥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흰머리 고래는 거대한 자연에 도전하는 인간의 왜소함과 허무 내지는 절망을 상징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선주 집안 애송이 선장, 바다가 삶의 이유가 된 베테랑 ‘흙수저’ 일등항해사와의 갈등, 자본주의 불가피한 한 얼굴인 태생적 신분구조, 자연 앞에선 인간의 왜소함과 자연에 도전하는 티끌 같은 인간의 무모함, 모든 구조가 소유를 향한 인간 탐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원래 ‘백경’이란 영화는 머리가 하얀 거대한 고래에 대한 선장의 끝없는 도전과 분노 그리고 파멸을 그린 영화란다.

딱 두가지로 삶의 패러다임을 구분하라면 ‘존재’와 ‘소유’이다. 권력과 자본, 선주와 선원, 오로지 자본만이 가치가 되어버린 자본본위 사회에서 소유는 의심없는 본질적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자연에 대한 공존의식 등의 존재론적 가치를 선

원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애송이 선장이 청문회에서는 난파선의 진실을 증언하게 함을 통하여 끄집어내고, 자연에의 도전 또한 인간탐욕의 결과일 뿐이라는 암시를 통하여 소유론적 가치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사우스 포(Southpaw)’란 영화는 사각링에서 강한 멧집을 무기로, 강한 번치를 도구로 상대선수를 쓰러뜨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권투선수의 영욕을 다룬 이야기이다.

분노를 참지못하여 삶의 이유와 가치였던 부인을 잃어버린 복서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약으로 그 절망에 대항하던 그의 삶은 법원의 결정으로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기에 영화적 가치를 끌어낸다. “아빠가 죽지 왜 엄마를 죽게했냐”며 아빠의 뺨을 수없이 때려대는 딸의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영화는 다시 희망을 찾아간다.

사우스 포! 왼손잡이 복서, 그것은 본능적인 분노의 폭발인 오른손 라이트 포와 대비되는 ‘인내와 수용’의 또 다른 의미인지도 모른다.





평생교육시대! 사이버교육은 시대의 조류입니다

본교를 방문한 웬디 펜튼
영국 국제개발연구소 조정관

“현장근무를 하면서
학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런던대 원격학위과정을 이수하여
큰 도움이 됐습니다.”



권구순 교수와 인터뷰 중인 웬디 펜튼 영국 국제개발연구소 조정관

Q. 영국 국제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ODI는 1960년 미국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지난 55년 동안 국제개발과 국제인도적 지원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연구하는 선도적 민간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연구소는 런던에 있고 연구진과 행정직을 포함, 약 230명의 전문인력들이 위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선진 공여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과 컨설팅, 그리고 각종 연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ODI에서 재난구호와 복구, 인도적 지원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 책임자, 정책집행자 등이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정책그룹(HPG)의 조정관으로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지원 그리고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Q.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비정부기구의 봉사단원으로 수단 다르푸르(Darfur)에 파견된 것이 1983년인데 2009년까지 아프리카의 현장에서 근무했으니 인생의 거의 반을 외국에서 보냈네요.

저는 주로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등지에서 내전이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난민이나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보니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빈번했

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희망을 품고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뿌듯했습니다.

Q. 런던대 원격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개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아프리카에서 학업을 병행하셨나요?

그 때만 해도 통신사정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강의보다 학습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지습하는 다소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과제나 질의응답은 웹 사이트를 통해서 했죠. 현장근무를 하면서 학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이러한 원격학위과정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본교를 방문하신 소감과 더불어 서울사이버대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먼저 학교를 둘러보고 나서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일단 시설과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고 전공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배움의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학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반평생을 아프리카 현장에서 보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지만, 요즘 들어 변화하는 환경가운데 관련 분야의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평생교육시대인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다니는 학생들은 시대의 조류를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끈기를 가지고 학업을 잘 마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시계탑 기증

- 의료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지난 12월 18일(금) 오후 3시, 연세암병원 광장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기증한 대형 시계탑에 대한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제막식은 연세대학교 정남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와 이세웅 명예이사장, 박현석 부총장 등 본교 관계자, 그리고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부부 등 많은贵宾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남식 의료원장은 “이렇게 뜻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이세웅 명예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시계탑이 표지석과 함께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세웅 명예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정남식 의료원장

이세웅 명예이사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이 시계탑은 2013년 예술의 전당 광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것인데 현재 그곳은 가장 잘 알려진 약속의 장소라고 한다. 이번에 설치된 시계탑 또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만남을 약속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계탑은 세계적 브랜드인 미국 일렉트릭 타임사(Electric TIME)의 제품으로,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함과 GPS가 내장된 첨단 설계,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조형미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다.



제막식 행사를 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와 신촌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

신·편입생을 위한 릴레이 특강 I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의 3D 디자인 특강

- 세상을 바꾸는 착한 디자인의 혁신사례 제시

평범함을 거부하는 남다른 패션센스와 멋스럽게 수염을 기른 개성 있는 외모,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를 두고 마스크에서는 ‘괴짜’라고 명명하는데 가치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그가 지난 11월 12일(목)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신·편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디자이너로서 그는 독특한 길을 걷고 있다. 소외된 이웃과 지구의 환경을 위한 사회공헌 디자인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민 교수의 착한 디자인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상업적 디자인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데 한계를 느끼고, 미련 없이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하여 친환경 자연증발가습기 ‘러브팻’, 재활용을 극대화한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통’ 등 기발하



2009년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러브팻

고도 독특한 결과물이 탄생했다. 이런 노력은 세계 4대 디자인상을 석권하는 행운을 안겨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창의성의 원천에 대해 배상민 교수는 이렇게 답한다. “창의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성적으로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항상 ‘What If’, ‘내가 만약’이라고 가정하고, 기존의 디자인을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낮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배상민 교수가 강조하는 3D는 꿈(Dream), 꿈을 통한 삶의 디자인(Design), 세상과 나누며 사는 것(Donate), 세 가지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디자인, 배상민 교수의 창의적 디자인은 그런 내일을 향하고 있다.



허요연 총장, 배상민 교수(중앙)와 참여 학생 기념촬영



발레 소재 영화 소개를 곁들이며 강연을 하는 문훈숙 단장

신·편입생을 위한 릴레이 특강 II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 특강

- 발레에 대한 기초지식 전달과 함께 발레리나들의 노력 조명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0월 17일(토)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동양인 최초로 <지젤>을 공연해 '영원한 지젤'로 불리는 유니버설발레단 문훈숙 단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문훈숙 단장은 한국 발레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1984년, 발레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국내 첫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을 시작해 2015년 현재 국립발레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발레단으로 성장시켰다.

특강 초반부 문훈숙 단장은 누군가 발레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Beauty'라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발레는 인간의 신체를 사용해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상의 춤'이라고도 하는데, 발레리나들은 하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목을 길게 늘이고 다양한 점프 동작을 통해 춤을 춘다고 했다.



다양한 동작과 함께 강연을 하는 문훈숙 단장

이런 발레리나의 노력에 대한 문훈숙 단장의 말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온 몸에 체중을 싣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발레리나들은 하루도 멈추지 않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레에는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스승이 알고, 삼일을 쉬면 모두가 안다’는 말이 있어요.”

이번 특강에서 보여준 발레를 향한 문훈숙 단장의 진정성에 참석자들은 큰 호응을 보여주었다.

신·편입생을 위한 릴레이 특강 III

가수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김민우 특강

- 2016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 이야기 전달

90년대 히트곡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입영열차 안에서’를 부른 김민우씨가 지난 12월 19일(토)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과거 김민우씨는 제대 후 활동을 재개하다가 돌연 모습을 감췄다. 당시 사업 실패로 젊은 나이에 큰 빚을 진 그는 화려했던 연예인의 삶을 내려놓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서 새 삶을 개척해 나간 것이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강단에 선 김민우씨는 자신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반영한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라는 주제로 치열하게 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굴이 알려진 가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고객의 시선을 극복하고, 계약직 직원에서 정식 직원을 거쳐 판매팀 팀장까지 맡은 기반에는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숨어 있었다.

“가수가 되기 전 오디션, 레코딩을 하는 3분을 위해 3년간 매일 아침 10km를 뛰고 10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위치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3분을 위해 3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명함’을 주지 않고 ‘심장’을 준다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한다는 그의 강연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이번 특강에는 본교 졸업생이기도 한 가수 박남정씨가 사전 연락 없이 참석하여 본교 관계자 및 청중들을 놀라게 했으며, 오랜만에 선배가수를 본 김민우씨 또한 더욱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신·편입생 지원자와 함께한 김민우씨의 특강 현장



(좌측부터) 허요면 총장, 가수 박남정, 김민우, 이완형 입학처장

대한민국 법조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한 법무행정학과 조신영 동문

안녕하세요. 법무행정학과 졸업생 조신영입니다.

군복무 중이던 2007년에 학사편입하였고 2009년 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군 시절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점이 필요한데 저는 법학 학점이 없었고, 학점을 얻기 위해서 사이버대를 알아보던 중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김선정 교수님께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학과는 끈끈함이 있습니다.

동문활동도 활발하고 교수님들과의 오프라인 만남도 자주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처럼 온라인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서울사이버대를 통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값진 성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신실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역사상 전무후무한 법조인이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저는 또한 통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과 통일한국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후의 직업 현장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역사상 전무후무한 법조인이 되기를 꿈꿔 봅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빛나는 서사인입니다

호남지역학생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나승수 학우

‘호남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2014년 상담심리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면서 저 또한 서사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호남지역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회장이 되면서 우리 지역학우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 바로 ‘권역별 지역모임 활성화’와 ‘동아리 모임 활성화’입니다.

지역모임은 광주 지역을 포함, 전북권, 순천권, 목포권에 거주하는 학우들과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였고, 동아리모임은 전국 지역캠퍼스에서 유일하게 독서토론포럼을 발족하여 매월 1회 책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모임이 이루어질 만큼 발전하여 뿌듯합니다.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은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는 일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다 두렵고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 지역학생회 행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참여하시면 정말로 학우님들의 대학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일 때 서사는 더욱 빛나는 법이니까요. 아울러 학교 측에서도 지역 특강을 좀 더 많이 기획하여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지역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번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학우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롭고 멋진 길이 여러분 미래에 펼쳐집니다!

여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두 명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동문이 있다. 그 주인공은 이명희, 양호승 동문. 이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에 진학, 현재는 디자인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에 출강도 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다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디자인 전문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명희 동문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만학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뒤늦게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 편입하여 2011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이론과 실기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 현재까지도 활용할 수 있어 너무 만족합니다. 한발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일과 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하고 나를 위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경쟁력을 키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디자인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3D 프린팅 수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를 딴 후 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대학에서 제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신기술로 불리는 3D 프린팅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가진다면 어떤 일에 부딪쳐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디자인 회사 운영과 대학 출강을 병행하는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양호승 동문

그린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건축엔지니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디자인에 관심이 생겨 시각디자인 전공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개최한 그린상상공모전에 참여하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 편입하여 2013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서울사이버대를 졸업 한 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모시'라는 디자인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에서 3D 프린팅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얻게 된 새로운 길입니다.



신기술로 불리는 3D 프린팅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명희 동문(멀티미디어디자인 2011 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인생의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양호승 동문(멀티미디어디자인 2013 졸)

서울사이버대는 더 많은 길을 알려준 고마운 학교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커리큘럼은 물론이거니와 장학제도 또한 훌륭히 갖추어져 있어 마음껏 저의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든든한 재단의 뒷받침이 있어 어느 사이버대학보다 안정적인 운영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통해 대학원 진학을 이룰 수 있었고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소중한 인연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보다 새롭고 멋진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음악학과(피아노전공)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대회를 개최하였다. 본교가 주최하고 음악교육신문이 후원한 이번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대회는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곡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응시하였고 약 한달 간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9일(토) 입상자를 축하하는 시상식이 본교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박현석 부총장, 음악학과 이경숙 석좌교수, 나정혜 교수, 신지연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입상자를 축하해주었다.

이경숙 석좌교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태양이 꽃에 색을 입히듯이 음악은 우리 인생에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진실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사랑하여 보다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시상식은 고등부, 일반부(중급, 고급)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고등부 수상은 조애지 외 14명, 일반부 중급은 배석환 외 7명, 일반부 고급은 이상은 외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음악적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음악재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대회는 앞으로도 예비 음악인들의 등용문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축사를 하는 이경숙 석좌교수



고등부 시상을 한 박현석 부총장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대회 기념 촬영



수상 기념촬영을 하는 김수지 前 총장(우측 세 번째)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수지 前 총장이 지난 11월 5일(목)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아하가족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김수지 前 총장은 국내에 호스피스 케어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만성정신질환자들에게 부모수 집단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인적 돌봄 기법이라는 간호이론을 개발하고, 국내 최

김수지 前 총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

초로 정신보건간호사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에 지역정신 보건을 담당할 일선 간호 인력을 양성했다.

김수지 前 총장의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여성지도자로서 소외받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루어 졌다.

한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여성지도자상’은 YWCA지도자로서 이 땅에 여성인권확립을 위해 힘써 온 박애스더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제정됐다.

강인 협동총장 ‘아름다운 무용인상’ 감사패 수여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인 협동총장은 지난 12월 1일(화)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3회 ‘아름다운 무용인상’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이번 감사패 수여식에서 강인 협동총장은 “이번 감사패는 저 혼자만의 감사패가 아닌 문화예술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번 ‘아름다운 무용인상’ 영예의 수상자로 한국 현대무용계의 대모로 불리는 육완순(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선생이 선정되었다. 육완순 선생은 현대무용가, 예술 교육자, 문화예술행정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박인자 이사장과 강인 협동총장(우측)

이성태, 남경호 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 기술과 예술, 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장 수여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남경호 교수가 2015년 10월 11일(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기술과 예술,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자로서의 연구와 활동이 타의 귀감이 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이성태, 남경호 교수는 인문학과 기술, 예술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다.

특히 문화콘텐츠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성태 교수는 하이퍼컬처 시대에 대한 연구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하이퍼컬

처(Hyper Culture)란 빠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래의 속도경쟁문화이다. 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화상인데, 이성태 교수는 이러한 하이퍼컬처 시대에 지각적 이미지 사유를 위한 감성학적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인 남경호 겸임교수는 공공지원사업에 따른 민간공연예술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두 교수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장 수여는 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연구중심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좌측)와 남경호 겸임교수(우측)

디자인의 미래 직업 세계를 체험하다

- 수유중학교 학생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직업 체험 현장 참석
- 이석민 교수의 디자인 특강을 통해 디자이너 직업 세계를 체험



복지시설경영전공 심선경 교수 특강 모습

지난 12월 10일(목)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서는 특별한 직업 체험 현장을 개최하였다.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강북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난나센터와 협력하여 수유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초대한 것이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석민 교수의 "디자인의 세계"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직업체험은 학생들에게 디자인의 종류부터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유익

한 시간이었다. 특히 이석민 교수는 본교에서도 특강을 진행한 바 있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면 "인간을 위한 디자인", "사회공헌 디자인"을 실천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복지시설경영 심선경 교수 또한 학생들을 만나 현재 사춘기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에 대한 해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본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시간도 가졌다.



Brief Interview

임현수 수유중학교 1학년
IT 계열 특히 영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들은 특강이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인간을 생각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특히 감명 깊었습니다.

강주희 인솔 학부모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처음 방문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이버대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학교 캠퍼스도 너무 예쁘고 교수님들도 좋으시고 특히 시설과 인프라가 훌륭한 것 같아요.



수유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석민 외래교수 특강



축사를 하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고승덕 이사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교무부총장, 사회복지학부 이문숙 학부장, 청소년복지전공 이희연, 김윤나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고승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최초로 인정받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협약식을 맺은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허묘연 총장 또한 “우리 대학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과정의 질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협력대안과 방향을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17일(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고승덕)와 청소년 복지 관련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승덕 이사장과 윤명길 사무국장 등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관계자와 본교 허묘연 총장, 정영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박진우 회장(아래 줄 좌측 두 번째), 허묘연 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권금주 교수, 이서영 교수,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박진우)와 사이버대학 최초로 노인 복지전공을 신설, 최고의 노인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1월 25일(수) 업무제휴 전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박진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더 좋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허묘연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부는 물론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교육과정과 노인 상담, 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함께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여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좌측)과 허묘연 총장(우측)

금천구청과 장학협약 체결

관계자와 본교 허묘연 총장, 정영애 교무부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차성수 구청장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교육과 복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구 직원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허묘연 총장 또한 “구청장님의 모토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마을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금천구를 교육 특구로 만드신 것으로 안다”면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을 찾아오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교육으로 화답하겠다”며 이번 협약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난 12월 30일(수)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금천구청은 직원들의 입학 및 장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등 금천구청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와 교육 MOU 체결

지난 12월 9일(수) 본교 허묘연 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구국모 입학지원실장은 강북구에 위치한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입학 및 장학 등 교육 교류 전반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충구 교장은 “이웃에 위치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이제 교육으로도 가까워졌다”고 기뻐하며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교와 세계 최고의 사이버대학을 지향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만나 세계 속의 인재를 키워내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허묘연 총장 또한 “우리 대학은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와의 교육 MOU 체결이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였다. 한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는 95년 전통의 사학 명문으로, 특히 국제무역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허묘연 총장(좌측)과 성암국제무역고 이충구 교장(우측)

SCU WAVE 사회봉사단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 WAVE 사회봉사단, 미아동 일대 소외가정에 1,500장의 연탄 전달



연탄나눔 봉사를 하기 전 단체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에서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4일(화) 미아동 일대 가정에 연탄을 전달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광호 학생처장, 이성태 교수, 허재현 교수, 김영민 교수, 이문숙 교수, 박기훈 교수, 이의신 교수, 구국모 입학지원실장, 노양건 계장, 유성인 주임, 박인형 선생, 전현진 선생, 유소희 선생, 정호진 선생, 신금철 선생, 홍보라 선생, 김현미 선생, 김보람 선생, 방지희 선생, 이민지 선생 등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CU WAVE 사회봉사단 일원으로서 미아동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전광호 학생처장과 김영민 교수

힘을 합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매해 겨울이 되면 실시하고 있는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500장의 연탄을 기증하면서 성사되었다. 봉사단은 길음역에 모여 운동본부 측의 연탄 나를 때 주의사항과 쌓는 요령 등 간단한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내 봉사단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였지만, 그 누구하나 힘든 기색없이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나눔을 진행하였다. '사랑의 연탄나눔'에 함께 참여한 전광호 학생처장(경영학과 교수)은 "연탄 한 장이 3.65kg인데 10장을 기부하면 사람의 체온인 36.5도가 된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SCU WAVE 사회봉사단

특별한 추억을 드리는 다문화가정 사진 촬영

- 2014, 2015년에 걸쳐 총 3회째를 맞이한 다문화가정 가족 사진 촬영 봉사
- 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촬영



총 열여덟 가정이 참여한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현장



SCU WAVE 봉사단은 지난 12월 12일(토) A동 5층 스튜디오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벌써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에는 총 열여덟 가정이 참여하여 행복한 추억을 찍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자연스러운 연출을 유도하는 포토그래퍼 이남운 씨(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졸. 2010)와 SCU WAVE 사회봉사단의 도움으로 이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촬영에는 메이크업과 헤어 재능나눔이 이어져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광호 학생처장은 "이제 다문화가족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찍히는 사람도 찍는 사람도 흐뭇한 가족촬영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SCU WAVE 사회봉사단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011년 창단하였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자발적으로 모여 연탄 나르기, 사진 촬영,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SCU NEWS

서사인 소식



1 2015 서사인의 밤 단체 기념촬영



2 케익 커팅식을 하는 내빈들 모습

서울사이버대 동문 송년회, '서사인의 밤'

12월 3일(목) 양재 외교센터 포에버리더스에서 본교 동문 송년회 '서사인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서사인 상'으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와 총동문회 재정감사 홍금표 동문(경영 06)이 선정되었고, 다양한 축하공연 또한 펼쳐져 참석자들 모두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총동문회 정오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 10주년을 맞이한 총동문회는 많은 개혁을 하였으며, 2016년은 그 변화의 원년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중앙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서마클 회원들

SCU 마라톤 클럽 서마클, 마라톤 대회 출전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표 동아리 서마클이 지난 7월 11일(토) 강릉경포마라톤대회, 11월 1일(일) 중앙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특히 강릉경포마라톤대회는 총 15명의 서마클 회원이 참가하여 전원 완주에 성공하였다. 참가자들은 SCU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라톤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서로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순간을 만끽하였다.



연합체육대회 시작 전 단체 기념촬영

수도권 9개 지역 연합체육대회 개최

10월 31일(토) 고양시 운동장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수도권 9개지역 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교 허묘연 총장 외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승부를 위한 대회가 아닌 함께여서 좋은 대회라는 모토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운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SCU NEWS

문화 행사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에 참가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 지원,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

10월 5일(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원한 이번 독주회에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바이올리니스트 홍종화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와 온화함이 어우러진 무대로 유명하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주회를 마치고 재학생과 함께 기념촬영한 나정혜 교수(중앙)

음악학과 나정혜 교수, 실내악 듀오 연주회 개최

12월 15일(화) 세라믹팔레스트홀에서 음악학과 나정혜 교수의 피아노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첼로 이강호와 듀오 연주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공연에 본교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우리 대학은 사이버대 최초 음악학과(피아노전공)를 개설하여 정통 클래식 음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 라 바야데르

재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발레공연 '라 바야데르'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0월 31일(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 '라 바야데르'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라 바야데르'는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15주년이던 1999년, 한국 발레 최초로 소개한 작품으로 한국 발레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좌측부터) 허묘연 총장, 이경숙 석좌교수, 나정혜 교수

명교수 시리즈, 이경숙 석좌교수 피아노 연주회

12월 17일(목) 금호아트홀에서는 본교 음악학과 이경숙 석좌교수의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아름다운 목요일 명교수 시리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연에는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최고의 피아노 연주회를 관람하고 이 교수의 지치지 않는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SCU NEWS

명사 방문



본교 투어를 마치고 서울사이버대와 신용협동중앙회 관계자 기념촬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문철상 회장 방문

10월 15일(목) 신용중앙회 문철상 회장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0일(목) 신협중앙회 임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장학 혜택과 입학금 면제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문철상 회장은 허묘연 총장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본교 대형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전현 교수 특강

예비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릴레이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6학년도 예비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명사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였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균관대와 국민대 객원교수로 재임중인 전현 교수가 '다 좋은 것은 예술이다'라는 주제로 11월 3일(화) 본교 대형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펼쳤다.



본교 B동 205호에서 진행된 이시형 석좌교수 특강

이시형 석좌교수 '잘 사는 법'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족상담학과 이시형 석좌교수가 본교 B동 205호에서 '잘 사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화병'을 세계 최초로 정신의학용어로 만든 정신의학계의 권위자인 이시형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바쁜 현대인이 놓치기 쉬운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팁을 청중들에게 알려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사회의 행복을 이야기한 이태수 명예교수 특강

서울대학교 이태수 명예교수 특강

11월 23일(월) 서울대학교 이태수 명예교수가 본교 대형 스튜디오에서 특강을 개최하였다. '행복한 삶, 맛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이태수 명예교수는 행복과 잘 사는 것(well-being)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이야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SCU NEWS

외부 행사



1 동신교회에 봉헌된 경용 파이프오르간



2 이세웅 명예이사장(좌측)과 동신교회 김권수 담임목사(중앙)

동신교회 경용 파이프오르간 봉헌

서울사이버대 이세웅 명예이사장은 동신교회(김권수 담임목사)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경용 파이프오르간을 봉헌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16일(수) 새롭게 리모델링된 동신교회 제2교육관 2층 회년홀에서 이세웅 명예이사장, 허묘연 총장, 박현석 부총장 등 본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예배를 드렸다. 김권수 담임목사는 "회년홀 리모델링과 경용 파이프오르간 봉헌에 힘써 주신 이세웅 명예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에 봉헌된 경용 파이프오르간은 미국 RODGER·Roland 그룹 및 이태리 Consoli사가 제작한 최고급 사양의 파이프오르간으로 본교 차이콥스키홀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것이다.



조옥희 교수와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증서



문화콘텐츠공학과 조옥희 겸임교수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문화콘텐츠공학과 조옥희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에 등재된다. 조 교수는 예술공학·게임아트 관련 논문 여러 편을 발표했으며,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정치·경제·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프로필과 함께 등재하는 인명사전이다. 영국 국제인명센터(IBC)·미국 인명정보기관(ABI)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희망 TV SBS 참여한 SCU WAVE 사회봉사단

SCU WAVE 사회봉사단, 희망 TV SBS 참여

11월 13일(금)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SBS 목동사옥에서 펼쳐진 '희망TV SBS'에 굿피플과 함께 참여했다. 희망TV SBS는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 1997년 '기아체험 24시간'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희망TV SBS라는 이름으로 매년 소외계층 어린이와 아프리카 및 제3세계 빈곤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교수동정



강인 교수
이주여성 문화 적응 관련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강인 교수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최된 학술회의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에서 "The Influence of Cultural Adaption Stress on Depression in Married Chinese and Vietnamese Immigrant Women"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권금주 교수
논문 게재 및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는 2015년 9월 30일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에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는 어떠한가?—가족 및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저자)로 게재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8일 개최된 '2015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노인학대 현장의 이해와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2월 31일 발행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12호에는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 현황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단독으로 게재하였다.



김동환 교수
논문 발표 및 게재, 학술상 수상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2015년 11월 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개최된 중국 상해시 교통대학교의 상해시 빌딩연구회와 (사)대한부동산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 공동학술대회인 'Convergence of Real Estate Industry and Evaluation'에서 "Advancement Plan of Real Estate Service(Quality) Research Methodology"라는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23일 발간한 '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 제63집에 "오피스빌딩서비스품질 차원구조와 측정모형의 우수성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에 발간한 '대한부동산학회지'(대한부동산학회) 제33권 제2호(통권 제41호)에는 "VECM 모형을 이용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변수 관계 분석", "오피스빌딩 서비스품질과 임대료의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의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날 발간한 "토지와 건물(국제부동산정책학회) 제30호에는 "신도시개발정책 경과내용 및 개선방안 고찰—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 28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단법인인 (사)대한부동산학회로부터 우수논문 및 최다논문 게재에 대한 공로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김미주 교수
논문 게재 및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2015년 11월 30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가 발행한 '직업건강간호학회지'에 "소규모 시내버스회사 운전기사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영향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보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선정 교수
논문 게재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는 2015년 12월 30일 발간한 '한국행정사학지' 제37호에 "노자의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타난 관계성에 관한 연구 : 바른 정책결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12월 31일 발간한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에는 "아프리카 분쟁과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영민 교수
물류 CSR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5년 12월 30일에 발간된 '유통경영학회지'에 "물류기업의 CSR 활동이 인지된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윤나 교수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 발표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는 2015년 11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통일한국 대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사회복지 실천 전략'에서 북한이탈주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지연 교수
논문 게재 및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2015년 12월 20일 한국게임학회에서 발간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의 사소통 방식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2015년 추계 한국게임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부모들의 온라인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 전략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나정혜 교수
협연 및 연주회 개최
음악학과 나정혜 교수는 2015년 12월 11일 예술의전당 주최 '문화햇살 콘서트'에서 Mendelssohn Concerto for Piano and Violin을 협연하였고, 12월 15일에는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실내악 듀오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석 교수
동아시아평화 관련 논문 발표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2015년 11월 7일 중국 산둥성 위해(威海)에서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산둥대학 한국대학 및 (사)한국현대중국연구회가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한 제3차 한중인문학술교류포럼에서 "중국 학계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해석 담론: 동아시아평화의 실마리를 찾다.(中國學界解讀 "中國夢"與"一帶一路"的話語: 并談尋找共建和諧東亞的頭緒)"라는 제목의 중문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태정 교수
논문 게재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2015년 9월 30일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에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는 어떠한가?—가족 및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교신저자)으로 참여하였다.



오창환 교수
도서 출간 및 논문 발표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는 2015년 11월 6일에 한국학술정보(주)에서 '독서습관'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고, 11월 11일 개최된 '2015년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미래 IT 기술 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문숙 교수
저출산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는 2016년 1월 28일 발간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에 "프랑스의 저출산 해소 요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서영 교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논문 게재
노인복지전공 이서영 교수는 2015년 9월 30일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에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는 어떠한가?—가족 및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교신저자)으로 참여하였다.



이성태 교수
디자인 작품 전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The start of the trial, hope"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국콘텐츠학회 주관 전시회에서는 "For the mother-in-law"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완형 교수
교수-학습 우수사례 수상 및 논문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는 2015년 12월 10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2015년 사이버대학 교수-학습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교수피드백 영상기반 온라인 토론수업"으로 특별상(원대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 한국유통경영학회 발간한 '유통경영학회지' 제18권 제6호에 "판매촉진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고객자산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 대형 유통기업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우경 교수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6년 1월 20일 발행된 'Asian Journal of Psychiatry'에 "Cognitive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Korea"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지영 교수
군 상담교육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지영 교수는 2015년 9월 30일 학회지 '위기관리이론과 실천'에 "군간부들의 군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이라는 논문을 공동(교신저자)으로 게재하였다.

교수동정



이정원 교수 군 상담교육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5년 9월 30일 학회지 「위기관리이론과 실천」에 「군간부들의 군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이라는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다.



이향아 교수 작품 전시 및 논문 발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5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사단법인 일러스트레이션학회에서 주관한 전시회에서 '러브홀릭'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30일 (사)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에서 주관한 학회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색채디자인 전략 (Color design strategy for improvement in learning effect of online education content)」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희연 교수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청소년복지전공 이희연 교수는 2015년 11월 6일 개최된 '2015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교육복지프로젝트조정자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질적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11월 28일 열린 '2015 디지털정책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업무수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30일 발행된 학회지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11호에 「융복합시대 중년기성인의 내외통제성이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호진 교수 중국기업 경영성과 관련 논문 발표

세무회계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된 '북동아시아학회 21회 전국학술대회'에서 「해외상장 중국기업의 상장 전후 경영성과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U.S Listed in China Firm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임세희 교수 논문 발표 및 논문 게재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15년 10월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은 수정·보완되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15년 12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정책」(KCI 등재) 제42권 제4호에 단독으로 게재되었다.



정상원 교수 직무적합성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전공 정상원 교수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2015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적합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의 윤리풍토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수미 교수 포스터 발표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된 '2015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세계학술대회'에서 "Moderating Effect of Onset-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Impact and Traumatized Self-System"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허재헌 교수 건강보험 인식 관련 논문 게재

보건행정학과 허재헌 교수는 2015년 10월 발간한 「한국콘텐츠학회지」에 「기록영화 식코(Sicko)를 활용한 수업콘텐츠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단독으로 게재하였다.

겨울 동화

따뜻함을 찾게 되는 이 계절, '가족'을 테마로 한 도서와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바로 가족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우리 대학원 동문의 책, 유명 소설가의 자전적 이야기 그리고 스테디셀러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한 페이퍼 아트뮤지컬입니다. 겨울 동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BOOK



상담심리관련 필독서 『가족사이코드라마』

출판사 중문출판사 저자 윤일수

현재 강원대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윤일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이다. 『가족사이코드라마』는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사이코드라마'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한 것으로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되어 상담심리 필독서로 꼽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를 지오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것을 담은 것으로 '각자'와 '함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가족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

BOOK



가족, 그 신비한 이름 『가족: 뒷모습』

출판사 샘터 저자 최인호

최인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 「가족 : 뒷모습」. 이 책은 소설형식으로 쓴 작가 최인호의 자서전으로 작가와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에 관한 소소하고 다정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진다. 이 이야기는 1975년 9월부터 월간 「샘터」에 연재를 시작해서 국내 잡지 역사상 가장 긴 연재로 기록되었다. 청년에서 장년, 그리고 중년과 노년을 거쳐 황혼기에 접어든 그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MUSICAL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공연 페이퍼아트 뮤지컬 『종이아빠』

『종이아빠』는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 종이접기놀이로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져드는 새로운 형식의 체험형 공연이다. 극중 배우들이 커다란 종이를 접고, 자르고, 풀로 붙여서 똑딱 만들어내는 종이인형들과 재미난 소품들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한다. 유쾌하고도 아슬아슬한 모험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

장소 코엑스아트홀 기간 2016년 3월 6일까지

